

2019년 1월호(제 169호)

소중한사람들

山

내가 슬플 때
무작정 그에게 달려가면
그는 마음껏 울라고
가슴을 열어 주었다

슬픔이 지나면
머지않아
기쁨이 온다고 속삭여 주었다.

내가 무심히 지나칠 때에도
그는 먼발치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보라 쳐도
그는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나를 기다려 주었다.

모진 세월 속에
늙어가고 지쳐가면서
내가 변했지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있다.
그는 그렇게 나의 산이 되었다.

나도 누군가의 산이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다.

시 · 유정옥

발행인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종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10-7195-3045 · www.pphealing.com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치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무척 조용했던 12월의 마지막 시간들

올 12월을 지나 보내며 처음 암환우 힐링센터가 시작되던 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처음과 비교하여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달라져 있습니다. 병원이 센터 안에 있고 주방도 안정적인 운영을 이루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간사가 있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 환우들을 돌봐드릴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연휴가 발생하며 그런 체계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깨달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의 중요성입니다.

올 12월 휴일은 특이하게도 25일도 화요일이었고, 1월 1일도 화요일이어서 연휴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우들도 연말연시에 많이들 집으로 가신 상태이고 병원도 휴무이고, 간사님도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방 집사님과 저만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주방 집사님은 지난 1년간 봉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봉사의 마음을 흉내라도 낼 수 있었습니까? 최근 허리가 아프셔서 그만둘 의사를 비치셔서 다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주방을 봉사하시는 분이 아닌 직원으로 뽑으려 하는데 다들 급여는 얼마를 주는지부터 묻는 것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 우리 소중한사람들에서는 어색한 질문이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무료 센터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헌신과 봉사로 섬겨 온 곳입니다. 봉사의 마음은 소중한 사람들의 기초라 할 것입니다. 무료로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은 사실 세상적 원리로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원리에 따라 돈을 준다면 섬김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가끔 돈을 더 줄 테니 특별히 자신에게 1인실을 내어 주고 좀 더 특별한 대접을 해줄 수 있냐고 묻는 전화가 있습니다. 저는 억만금을 주어도 우리의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먼저 오신 분이 1인실에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하신 분이 1인실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돈을 받지 않고 최고의 헌신과 섬김으로 환우들을 대합니다.”

1인실은 본래 설계상 넉넉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 섬김과 편이를 돈으로 살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쉬는 날이면 쉬어야 하고 노동부에서 정한 시간이 지나면 집에 가야하는 원리 속에서는 사실 지금 1년간의 힐링센터는 운영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장로님이 늘 청소로 섬겨 주시고, 또 우리 주방 집사님이 섬겨 주시고, 부족하지만 제가 24시간 늘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 느끼게 됩니다.

결국 12월 휴일들 속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저와 주방장님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문 닫아 놓고 쓸 수가 없는 것이 환우들은 늘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환우 한분만을 위해서 저 혼자 모든 것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운영에 절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신과 섬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무척 난감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겨울 새로 뽑은 부교역자에 대한 한탄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헌신과 섬김이라는 근본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런 모습은 찾을 수 없고 부교역자 중에는 더러 오직 더 좋은 예우, 더 좋은 환경만 찾아다니다 보니 함께 사역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동역자들에게 더 잘해 줘야 하겠지만 마음을 함께 섬겨나간다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 나갈 수 있을까요? 결국 그 목사님은 올해는 뽑지 않기로 했나 봅니다.

어머니가 서울 노숙인 센터를 운영하시며 가장 많이 숙직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냐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휴일들과 주말을 직원들 대신 업무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통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날도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되지 그렇게 어머니가 다하시려니 병이 나요.”

그러면 어머니는 금방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도 해봐라”

12월 마지막 주간을 지나며 생각하니 결국 남는 사람은 나와 주방 집사님 뿐인 것을 보고 그 ‘너도 해봐라’ 라를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와 서울 노숙인 섬기는 사역이 전부 무료로 운영되는 한, 이곳에는 그 사랑으로 섬기며 열정적으로 기도 할 사람들이 늘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도 헌신과 섬김이 소중한 사람들에 가득하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글/ 이성일 목사

2018년 12월 형명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천사헌금●

김희정(1,000,000) 구남진(1,000,000) 이중권(1,000,000) 정동영(1,000,000) 김양숙(1,000,000) 이주열(1,000,000)
변현명(1,000,000)

●십일조●

김선용(170,000) 민안나(120,000) 박광수(140,000) 박용범(400,000) 석영란(300,000) 이성일,박선인(300,000)
이혜숙(100,000) 최영자(100,000)

●목적헌금●

제설기헌금(4,200,000)

●감사헌금●

계경진(200,000) 구자은(50,000) 김미희(200,000) 김옥단(10,000) 김재균(100,000) 김재정(100,000)
민안나(200,000) 박광수(20,000) 박라영(200,000) 박윤례(50,000) 박재경,박인숙(550,000) 서지희(20,000)
안진원(200,000) 유정옥(520,000) 윤명희(50,000) 이경훈(50,000) 이미영(700,000) 이비원,김분기(380,000)
이성일,박선인(320,000) 이재호,박경미(170,000) 정선주(100,000) 정영신(5,000,000) 정정순(100,000) 정훈기,박효정(357,500)
조영숙(70,000) 최명숙(50,000) 최영희(100,000) 최영재(215,000) 기도해요(20,000) 김광숙(30,000)
김동수(20,000) 김미영(30,000) 김선아(100,000) 김수영(100,000) 문희주,지선숙(20,000) 박관희(5,000)
박춘배(100,000) 변현명(100,000) 성경윤(50,000) 소한태(10,000) 손명옥(100,000) 손문호(50,000)
씨앗헌금(100,000) 안정미(20,000) 윤애임(5,000) 이명승(50,000) 이원옥(1,000,000) 임승환(100,000)
정은영(20,000) 차승현(10,000) 최영희(10,000) 한재웅(50,000) 한은숙(400,000) 현성원(30,0000)

(기장)예사랑교회(100,000) (예장)서울서교회(100,000)

●CMS헌금●

김연주(100,000) 안서영(100,000)

2018년 12월 형명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십일조	1,630,000	자동차 정비 및 운영비	297,690
감사헌금	12,812,500	자동차 주유비	523,200
천사헌금	7,000,000	자동차 할부금	466,575
목적헌금	4,200,000	식자재구입비	4,697,377
CMS헌금	200,000	전기요금	3,792,110
		가스요금	314,900
		안전점검비	1,122,120
		교육도서비	117,900
		달력제작비	898,100
		급여,인건비	7,500,500
		화재보험료	1,200,000
		비품구입비	1,017,750
		시설공사비	1,144,000
		병원집기구입비	4,358,600
		병원대여금	6,000,000
금월 수입 합계	25,842,500	금월 지출 합계	33,450,822
전월 이월금	540,164		
차입금	9,000,000		
총 수입 합계	35,382,664	금월 잔액	1,931,842

성탄의 큰 별이 뜬 우리는 한 가족

청평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 성탄의 기쁨이 왔다. 암환우들이 자발적으로 11월부터 성극 연습을 하고 있었다. 성극 연습 때 얼마나 깔깔대고 웃는지 ‘여기가 과연 암환우들의 병실인가?’

의아할 정도였다.

그런데 암환우 중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와 “사모님! 우리 성극 출연자들이 12월20일까지 단 한 명도 낙오 없이 맡은 배역을 다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제야 암환우들이 얼마나 절실한 심정으로 성극에 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 정신을 차렸다. 그들이 생기 발랄하게 성극 연습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말기 암환우들이기 때문에 “한 명도 낙오됨 없이” 라는 의미가 결코 개인의 사정정도가 아닌 그 날까지 암의 진행 없이 다함께 살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알았다.

성극을 위해 기도하다보니 어느새 힐링센터에 들어와 있는 모든 환우들 중 단 한 명도 이별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하고 절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성도의 죽음은 주님께서 이 땅보다 더 좋은 곳 천국으로 불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족의 이별은 감당할 수 없이 슬픈 것이다. 그 이별이 잠간인 것을 알지만 우리는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행복을 원한다.

드디어 성탄의 날이 왔다.

말기암 환우들의 성극! 암환우들이 성극을 하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박장대소하는 웃음소리가 예배당을 넘어 온천지에 퍼져 나갔다.

오늘 성극에서 가브리엘 천사 역할을 맡은 이미*님의 가족은 남편을 비롯하여 딸들과 사위까지 왔다. 막내딸 예비 사위는 이 곳에서 장인, 장모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것 같았다. 장모에게 바칠 꽃다발이 범상치 않은 것을 보니 단단히 준비한 모양이다.

이미*님은 처음 뇌종양을 시작으로 암이 발병되었다. 그 후 유방암과 폐암으로 전이 되었다. 그녀는 말기암 환우이지만 항암치료를 포기하고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동안 체중이 2킬로그램이 늘었다.

암환우가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언제나 밝고 상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녀는 하루하루의 연장이 곧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덩이라고 말한다.

성악을 전공한 그녀의 큰 딸이 특송을 했다. 암으로 아픈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참으며 찬양을 부르는 그녀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성스러웠던지 나는 이미*님이 내년에도 십년 후에도 아니 이십년 후에도 딸이 어머니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계속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요셉 역할을 맡은 구자*목사님은 식도암으로 잃어서는 안되는 성대를 잃었다. 인공 성대 수술을 했고 폐암으로 전이 되었으나 인공 성대를 지키기 위해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서 입소해 있는 동안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헤롯왕 배역을 맡은 이제*님은 췌장암 환우인데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동안 완치되었다. 유대인들에게 호적하라고 통보하는 배역을 맡은 박효*님은 난소암 3기로 자궁, 복부, 림프에 전이 되었었는데 힐링센터에 입소한지 3개월 만에 완치의 기적을 이룬 환우이다. 완치 후 힐링센터에 머물고 싶다고 사랑의 공동체에 입주한 분이다.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최영* 권사님은 난소암으로 수술을 받았다.

동방박사의 역할을 맡은 환우들은 모두 대장암 말기 환우들이다. 매일 매순간 고통을 견디고 있는 중에도 안진*님은 거제도여서 경상도 본토 사투리, 박윤*님은 광주여서 전라도 본토 사투리를 쓰면서 언제나 씩씩하다. 이번 성극에서도 씩씩한 사투리로 동방박사 역을 멋지게 해내었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큰 별이 예배당 기둥에 떴다. 노란 색종이로 만든 별인데 6살 하진이 만들어놓은 별의 규격이 영 맞지를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모인 우리들 모두가 그 별을 쳐다보며 기뻐하였다.

그 날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따메 저그 거시기 좀 보시랑게요.”

“맞데이 역수로 크데이.”

그 날 기둥에 붙여놓은 색종이 큰 별은 새해를 맞이한 지금도 예배실에 떠 있다.

성탄절에 암환우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 서울역 노숙인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양말, 빵, 미니초코바, 사탕을 한 봉지씩 300개를 만들어 선물했다. 노숙인들은 한 봉지씩 가슴에 안고 기뻐했다.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 들어와 있는 암환우들, 암환우들의 가족들, 목사님, 의사선생님들, 간호사선생님들, 주방에서 수고하는 조리사님들, 중보기도 성도님들,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서울역 노숙인들, 자활센터 생활인들, 그들을 섬기며 수고하는 직원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해외에 있는 고아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퐁퐁 뭉쳐진 행복한 가족이다.

글/ 유정옥



목요 Precious Worship

소중한사람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암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청평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예배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중보 기도팀은 소중한사람들 중립동 센터로 오후 3시까지 와서 청평으로 이동하여 1시간 자유롭게 기도한 후, 오후 5시30분 소중한사람들 힐링 센터 식당에서 청평 인원과 함께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는니다.

7시부터 중보기도가 시작되고 암환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가 더욱 필요한 것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로 50여명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암환우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중보기도 동역자들은 목격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음 깊은 진심으로 소중한사람들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의 사랑과 기도의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소중한사람들은 기도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에 기도의 동역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소리가 암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동역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소중한사람들 의원이 허가가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환우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환우들을 돌볼 수 있게 된 것을 후원자님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박용범, 이규만 의사선생님과 임명자, 박선인 간호사선생님께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장 소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말 씬 : 유정옥 사모
기도회 인도 : 이성일 목사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목요기도회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1시 예배와 점심 나눔



▲ 남산교회 ▲ 빛의자녀들교회 ▲ 안양감리교회 ▲ 영락교회



▲ 이든힐 ▲ 서빙고은누리교회 ▲ 김태현목사님과 중창단 ▲ 박선주관장님 가족

정은영님 가족 따뜻한 상하복 300벌 박선주님 가족 고급 목도리 300개 청평 암환우들 양말 300개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14년째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이 다함께 점심을 나눕니다. 매일 300명이 넘는 노숙인들에게 영양 있고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1일 서울 남성합창단, 7일과 18일 서빙고은누리교회, 8일 두사랑선교회, 10일과 17일 안양감리교회, 11일 조이어스교회, 15일 포도나무선교회, 19일 이든힐, 20일 빛의자녀들교회, 22일 분당삼성교회, 24일 양재은누리교회, 26일 영락교회, 27일 남산교회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박차련, 전중우, 박정근, 노정규, 박인혜, 이현미, 이혜숙, 이주희.... 개인 봉사자님들과 손진섭·정순명 집사님 가족과 박철홍·문차미 집사님 가족이 봉사해 주셨습니다.

성탄절과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사랑하는 마음도 곳곳에서 모아졌습니다. 정은영님 가족이 따뜻한 상하복 300벌을 선물하여 노숙인들 300명에게 나누었습니다.

박선주님 가족이 고급 목도리 300개를 선물하여 12월24일 노숙인들 300명에게 나누었습니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 입원해 있는 암환우들이 양말과 빵, 초코바, 사탕을 한 봉지에 넣어 300개를 선물하였습니다. 노숙인들이 어린이들처럼 기뻐했습니다.

조이어스교회에서 양말 300개 와 성탄 특식비를, 양재 은누리교회에서 성탄 특식비를 보내오셔서 불고기, 닭볶음탕, 잡채를 맛있게 준비 했더니 소중한사람들 센터에 들어 설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노숙인들이 모여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신 날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였습니다.

12월1일 서울 남성합창단에서 28일에는 김요엘 목사님과 양미성 사모님과 함께 중창단이 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한 노숙인들이 매 주일마다 노숙인들을 전도 하러 나갑니다.

예배참여나 급식을 받지 못하고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유리하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주일마다 컵라면과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요엘 목사님, 장해룡님, 정기중 목사님, 이은철 목사님, 이범주 웃음치료 교수님, 이성일 목사님께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제 9회 노숙인 성탄 감사 찬양대회 소중한사람들 교회



올해로 9년째 행해진 노숙인 성탄 감사 찬양대회는 오병이어 찬양단에서 주최하였습니다.

43명이 참가 했습니다. 참가한 전원에게 1만원씩 참가상을 주었습니다.

대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른 이한동님이 차지했습니다.

금상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른 서원범님, 은상은 갈보리 산 위에 부른 조영훈님과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함은 부른 강연중님과 예수님 오소서 부른 박홍철님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성탄절 찬양대회는 노숙인들의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올해 준비를 못한 노숙인들은 너무 아쉬워하며 벌써부터 내년엔 실시될 성탄 감사 찬양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베풀고 있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어 준 정기중 목사님과 오병이어 찬양단에게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성탄절 천사 선물 35명의 생활인들에게 1:1 맞춤 선물 쉼터 대대적인 전기시설 공사 서울시 기능보강비 후원 쉼터 화재에 취약한 벽체 교체 공사 사회복지법인 세림 후원

소중한사람들은 노숙인에게 무료급식만으로는 자활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을 깨닫고 2005년부터 노숙인 자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 생활인 프로그램으로 불링을 배우고 있고 문화 체험을 위해서 단체로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온누리교회에서 쉼터 생활인들에게 1:1로 멋진 운동화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생활인들은 성탄절 선물로 좋은 신발들을 받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올 겨울 건조하여 전국 각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쉼터도 건물을 사용한지 15년이 되다보니 전기 시설이 낙후하여 누전이 되고 전기시설이 열악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능보강비 19,966,000 원을 후원받아 대대적인 전기 공사를 새롭게 가설했습니다.

인화성 있는 벽체 교체는 사회복지법인 세림에서 9,890,000 원을 후원해 주셔서 벽체 공사를 마쳤습니다.

쉼터 생활관 201호 물이 새는 것을 공사하고, 202호 숙직실 보일러도 새로 교체 했습니다.

쉼터 생활인들은 잃어버린 혈육의 가족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소중한사람들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갑니다.

남성쉼터는 현재 35명이 입소되어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자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소생활인 전원이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공공근로나 자활근로가 아닌 민간업체에 취직을 했고 전원이 소득의 일정금액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생활인들은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꾸준히 저축을 합니다.

생활인들은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권대봉님은 매 월 소득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인들은 매일 6시 QT를 통해 형광펜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쉼터 생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회인으로 가정인으로 회복 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 2018년 12월 31일

소중한사람들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 목	예산내역	과 목	예산내역
보조금수입	281,287,850	인건비	148,812,410
이자수입	5,649	사회보험부담금	24,966,310
		기타후생경비	650,000
		운영비	26,698,510
		급식비	73,019,940
		종식비	6,002,970
		명절비	690,000
		퇴직자 정산금	445,370
보조금수입(프로그램)	690,000	프로그램사업비	690,000
보조금수입(기능보강)	31,139,800	기능보강사업비	31,139,800
합 계	313,123,299	합 계	313,115,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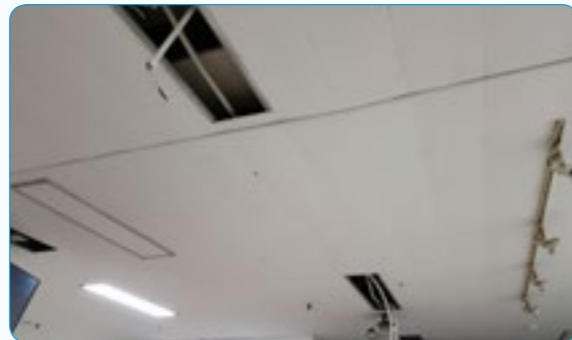
2018년 후원금(금전) 수입 및 사용명세서

세 입		세 출	
과 목	예산내역	과 목	예산내역
지정후원금(공동모금회)	4,821,000	프로그램사업비	3,872,500
		프로그램사업비반납금	948,500
지정후원금(서노협)	2,900,000	추석명절지원사업비	2,900,000
지정후원금(세림복지재단)	9,890,000	기능보강사업비	9,890,000
합 계	17,611,000	합 계	17,6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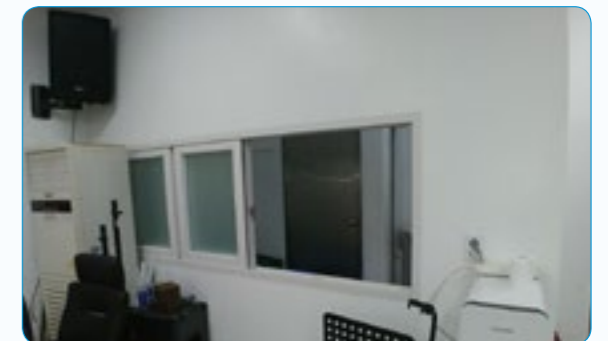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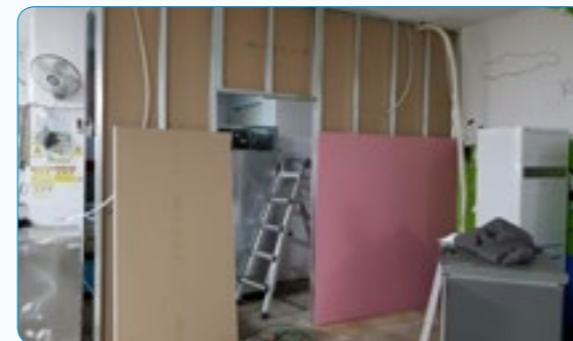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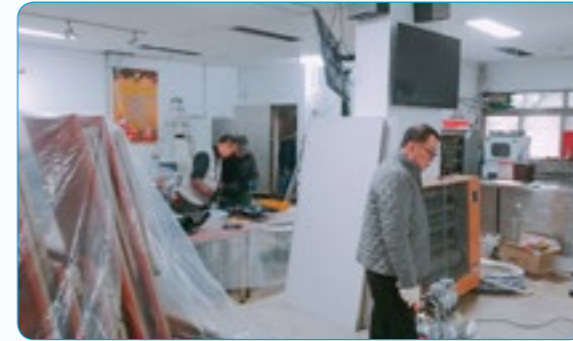
2018년 자부담(기관전입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세 입		세 출	
과 목	예산내역	과 목	예산내역
기관전입금	15,297,730	인건비	25,500
예금이자 수입	195	사회보험부담금	7,597,370
법인회계전출금	130,740	수용비 및 수수료	1,199,350
이월금	449,473	공공요금	3,356,930
		제세공과금	1,800,000
		지하공공요금반환금	3,254,220
합 계	15,878,138	합 계	17,233,370

소중한사람들 전기공사



소중한사람들 벽채공사



상당 · 치유 · 봉사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2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2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 주신다.

매월 셋째 토요일 12시부터 진료가 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730회가 되었다.

소중한 사람들 사역의 종합적 기도 제목을 기도한 후 참석자 개개인의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

중보기도 제목

1. 소중한 사람들 사역

- 1) 남성 쉼터 생활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 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
- 3) 진료, 상담, 사위,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 4) 타국인을 섬기는 소중한사람들 이주민 센터 사역을 위해

2.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3.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마,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4. 아이티 사역

- 1) 교육-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육 2) 고아1:1후원 3) 싱글맘 사역 4) 형무소사역 5) 무료진료 6) 손전등 보급

5. 치유 - 신형진, 최유운, 김정신, 박효정, 이제호, 구자은, 이미영, 정찬용, 김미희, 박윤례, 안진원, 이비원, 최영자, 박정민, 조영숙, 서오석, 정해용, 김진수

6. 그동안 기도해오던 진행성 근육 수축증 치료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사비용이 너무 비싸서 환우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용이 저렴해져서 환우들이 마음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7. 앤드류 구명을 위해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2210-9106<문자로>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아이티

1. 교육 사역

- ① 방과후 학교 교육의 강화 : 방과후 학교 개념이었던 아이들의 교육(오후 2~4시)이 대안학교 개념(오후 1~5시)으로 정식적인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② 컴퓨터 교육 : 25대 규모로 컴퓨터 교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역은 현지 학교와 연계하여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며, 궁극적으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하는 미국, 아이티 현지의 선교사 부부와 봉사자들이 강사로 참여하고있습니다.
- ③ 영어 교육, 한국어 교육
- ④ 몬테소리 복음화 성경 교육

2. 아이티 제배마을에 초등학교 건립

아이티 제배마을에 초등학교가 은혜가운데 건립 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외벽은 거의 다 지어 졌습니다.

김용수, 송연숙 선교사님은 매일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동시에 초등학교 건립을 감리하고 계십니다. 아이티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 할 수 학교를 건립해 주신 미국 뉴저지 은혜와 사랑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2월 은혜와 사랑교회에서 준공예배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사역하시는 두 선교사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3. 성탄선물나눔

아이티 선교사님이 12월25일 재배마을에 가서 성탄 선물을 나누셨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누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다함께 기뻐했습니다.

아이티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과자들과 음료들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미얀마**

소중한사람들은 2008년부터 김동호, 조현정 선교사님과 동역하여 현재 미얀마고아 후원과 초등학교 운영, 중 고등학교 건립 및 운영 후원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얀마에 사이클론 재해로 수십 만 명의 고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길거리를 헤매는 고아들을 위해 미얀마 양곤에 고아원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여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쾡갈레이 기독교 초등학교는 2015년 4월 미얀마 교육부로 공식 인가를 받고 사립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고, 미얀마에서 최초로 인가받은 기독교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받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독교 중,고등학교 건립중이며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여러 후원자님들을 통해 미얀마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불교국가에 기독교학교를 세우고 복음화의 초석을 놓는 일에 뜻을 같이 해주실 후원자님들을 기다립니다.



멕시코



2010년 3월 멕시코 엔시나다에 인디오 원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천 학교 겸 고아원을 세워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인디오 원주민들은 캄보라는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며 집단 거주를 하는데 15살때부터 아이를 낳아 한 가정에 아이가 6~10명이나 됩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들은 매춘부나 마약딜러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멕시코 엔시나다 오벤에돔의 집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2009년 11월부터 중국 도문시 애심 복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아들은 탈북자들의 아이들이거나 연변에 버려진 조선족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아후원 사역은 한철범 원장님, 선교는 최민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북한

2008년부터 평성, 황주 고아원을 김**선교사님이 담당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각 고아원에 초유와 분유, 콩, 옥수수, 감자, 밀가루, 의류, 생필품, 의약품, 묘목 등 여러 고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폐쇄된 그곳이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으로 보이지 않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선교는 후원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출판 소중한사람들의 첫 번째 이야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84쇄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했던
유정옥 사모의 신앙생활을 담은 에세이
고아가 된 어느 남매를 맡아 키운 이야기
생면부지의 암환자를 봉양한 이야기
먼 나라 카자흐스탄에서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 등
삶의 굵이마다 펼쳐진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준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유정옥 · 정가 10,000원)

도서출판 소중한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유정옥 사모의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는 서울역 노숙인들 곁에서
12년간 함께 해온 유정옥 사모가 그곳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이야기와 자신이 살아오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두려워할 때
다시 힘을 얻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유정옥 · 정가 12,000원)

도서출판 소중한사람들 세 번째 이야기 〈달팽이네 6공주〉

출간 20일 만에 종교 주간 베스트셀러 6위!

저자 정순명의 〈달팽이네 6공주〉는 여섯 자매를 낳고
기르면서의 경험을 적어내린 글모음집이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또 임신', '사랑스런 6공주',
'다섯째의 거침없는 꿈의 진화', '달팽이를 향한 사랑의 노래',
'내 사랑 콩깍지'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달팽이네 6공주
(정순명 · 정가 12,000원)

말씀 통독, 정독 및 성경 공부용 신개념 성경 〈형광펜 성경1, 2, 신약1〉

퍼낸이<이성웅/이한나> 출판사<하늘창고>

[형광펜 성경 1]이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묶어 8월 17일에 출간되었으며, 역대상부터 말라기까지 묶은 [형광펜 성경2]가 2016년 4월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광펜 성경 신약1]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개역한글판”으로 출간됩니다.

형광펜 성경의 표시 방법은

각 장 별로 반복되는 구절을 찾아서 다르게 표시해 주었습니다. 2~3단어의 짧은 구절은 글자 색에 변화를, 4~8단어의 구절에는 같은 색의 밑줄을, 9단어 이상의 긴 구절에도 글자 색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짧은 구절은 경우에 따라 가독성을 고려하여 표시를 생략하기도 하였습니다. : 특히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구절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형광펜 성경 신약1]에서는 구약이나 해당 복음서 안에서 관련 구절을 찾아 복음서가 쓰인 당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대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찾아 그 의미를 본문 옆에 기록하였으며, 무엇보다 헬라어 원문의 뜻을 찾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관련된 그림 혹은 지도를 찾아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며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형광펜 성경을 통해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형광펜 성경으로 이야기를 들듯이 성경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유튜브에서 형광펜성경 하늘창고를 검색하시면 동영상 강의로 쉽게 성경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광펜성경1 (이성웅/이한나 · 정가 13,000원) 형광펜성경2 (이성웅/이한나 · 정가 14,000원) 형광펜성경 신약1 (이성웅/이한나 · 정가 12,000원)

티타임&바이블 〈형광펜성경 오프라인 특강〉

티타임&바이블은 바쁜 직장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열린 성경 모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작은 성경 카페 같은 모임이에요. 특히,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겼는데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었던 분들,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궁금한 점들이 생길 때 바로바로 질문하지 못해 답답하셨나요?

티타임&바이블에서 혼자 또는 함께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담당 목회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티타임&바이블에 함께 모인 다른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시간에 오셔서 특강을 들어서도 좋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다 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티타임&바이블에서는 티와 커피가 후원자들의 손길을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오픈한 공간이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들려주세요.

※ 형광펜성경 오프라인 특강일정 ※

신 명 기 (화 오후7:30/ 강남구청역 갯피플웨딩)
열왕기상 (금 오후7:30/ 공덕역 르네상스타워 2205호)
창세기 (주일 오후3:00/ 공덕역 르네상스타워 2205호)

❖ 일반서점, 인터넷서점, 직접주문(02-365-9106)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소중한사람들의 책 수익금은 서울역 노숙인 무료급식, 암환우 힐링 센터 의료 선교비로 쓰여 집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읽혀 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추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누군가 오는 것은 오래 걸리는데 가는 것은 금방 가네요. 세월도 바람처럼 날아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나간 것들은 좋은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조용히 덮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은 사람을 설레게 하지요.

새해에는 덮어 주는 사랑 쌓여가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소중한사람들은 노숙인들에게 다가가 섬기지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힘들다 어렵다 하시지 않으시고 함께 동역 해준 후원자님들께 가슴 깊이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12월에 십일조를 보내주신 고연희·김건우, 김영진·손미나, 손진섭·정순명, 이성용·이하나, 이창교·신혜숙, 정운정·이산·이설,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강성희, 권경희, 권대봉, 김재균, 김호선, 나은선, 도문식, 동광프리즘, 무명, 박혜수, 설충근, 송정은, 신진경, 유광현, 유정옥, 이운정, 이용수, 이주열, 이주희, 이혜숙, 임나리, 장미라, 장지호, 정동준, 정일권, 최경희, 최신애, 황정아 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 감사 헌금을 보내주신 이성용·이하나 가족과 구명신, 김갑희, 김숙희, 김영미, 김용달, 엄은숙, 오동원, 이준근, 0896번, 주영훈님께 감사드립니다.

기관, 단체 헌금을 보내주신 (기감)아현교회, (기감)안양감리교회, (기성)강변교회, (예장)영락교회, (예장)서빙고온누리교회, (예장)양재 온누리교회 (예장) 조이어스교회 (예장)베이직 교회 성경통독반 (예장)양의문 교회 순복음사랑교회, (사)온누리약국사회복지회와 대표 박중화님, (주)한국경제신문 (주)서일이엔엠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강은수, 김미희, 무명, 박효정, 조경숙, 한종석... 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의 고아들을 섬기는 일에 헌금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아이티로 직접 송금하여 아이티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 미국 뉴저지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CMS를 통해 매달 후원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섬김 헌금을 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شط터 생활인들은 취직을 하여 직장을 얻고 저축을 하며 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부모 없는 고아들이 희망과 꿈을 키우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돌보아 줄 가족도 없는 환우들을 섬기기 위하여 건립된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 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법적인 울무에 갇혀 있는 분들이 승리하여 완전히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형진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운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효정, 이제호, 구자은, 이미영, 정찬용, 김미희, 박운례, 안진원, 이비원, 최영자, 박정민, 조영숙, 서오석, 정해용, 김진수님의 치유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한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후원자님들의 가정의 건강과 직장 학교와 섬기시는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쁨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해에 후원자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소중한사람들
유정옥 드림

12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사용수량	재고
12/3	푸드뱅크	빵	2박스	12/4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2박스	0
12/3	푸드뱅크	떡	1박스	12/5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1박스	0
12/3	푸드뱅크	만두	1박스	12/6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1박스	0
12/3	푸드뱅크	식재료	1박스	12/4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1박스	0
12/7		빵	4박스	12/8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2박스	2
				12/9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2박스	0
12/10	푸드뱅크	빵	3박스	12/11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2박스	1
				12/12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1박스	0
12/10	푸드뱅크	식재료	1박스	12/11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1박스	0
12/10	푸드뱅크	만두	1박스	12/13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1박스	0
12/11	목9동롯데마트사장님	바나나	3박스	13일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3박스	0
12/14	푸드뱅크	빵	2박스	12/15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2박스	0
12/14	푸드뱅크	만두	1박스	12/16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1박스	0
12/14	푸드뱅크	떡	1박스	12/17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1박스	0
12/14	정은영	겨울옷(상의)	300벌	12/22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300벌	0
12/14	정은영	겨울옷(하의)	300벌	12/22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300벌	0
12/14	영락교회	쌀20KG	10포	12/15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2포	8
				12/16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2포	6
				12/17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2포	4
				12/18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2포	2
				12/19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2포	0
12/15	오륜교회	절임배추	2박스	12/16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2박스	0
12/17	푸드뱅크	음료(꿀물)	27박스	12/18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7박스	20
				12/19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7박스	13
				12/20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7박스	6
				12/21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6박스	0
12/17	푸드뱅크	빵	3박스	12/18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2박스	1
				12/19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1박스	0
12/18	옷싸게사자	양말	3박스	12/9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3박스	0
12/18	옷싸게사자	남성팬티	1박스	12/9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1박스	0
12/20	서노협	마스크	100개	12/20	거리노숙인	마스크나눔	100개	0
12/20	서노협	섬유유연제	102개	12/20	거리노숙인	섬유유연제나눔	102개	0
12/21	푸드뱅크	닭가슴살	15박스	12/21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3박스	12
				12/22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3박스	9
				12/23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3박스	6
				12/24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3박스	3
				12/25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3박스	0
12/24	박선주(영은미술관)	머플러	2박스	12/24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2박스	0
12/25	온누리교회	신발	33켤레	12/25	거리노숙인	신발나눔	33켤레	0
12/25	정은영	감귤5KG	20박스	12/25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10박스	10
				12/26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10박스	0
12/24	푸드뱅크	만두	2박스	12/25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2박스	0
12/24	푸드뱅크	빵	3박스	12/26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2박스	1
				12/27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1박스	0
12/28	푸드뱅크	빵	3박스	12/29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2박스	1
				12/30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1박스	0
12/31	푸드뱅크	빵	3박스	12/31	거리노숙인	무료급식	3박스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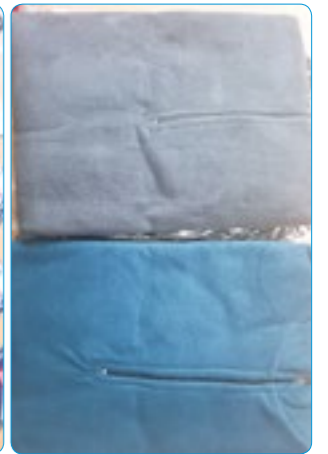
▲ 남성팬티



▲ 서노협_섬유유연제



▲ 옷싸게사자_양말



▲ 정은영_의류300벌

2018년 12월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2018년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십일조 헌금●

고연희,김건우(200,000)	강성희(170,000)	강성희(140,000)	김영진, 손미나(1,300,000)	김재균(220,000)	김호선(170,000)
나은선(300,000)	도문식(2,000,000)	동광프리즘(1,000,000)	무명1(500,000)	무명2(100,000)	박혜수(1,000,000)
설총근(50,000)	손진섭, 정순명(650,000)	송정은(1,000,000)	신진경(500,000)	유광현(450,000)	유정옥(200,000)
이성웅, 이한나(200,000)	이윤정(500,000)	이응수(100,000)	이주열(300,000)	이주희(800,000)	이주희(300,000)
이창교, 신혜숙(250,000)	이혜숙(33,000)	임나리(300,000)	장미라(5,000,000)	장지호(50,000)	정동준(1,000,000)
정윤정, 이산, 이셀(571,000)	정일권(100,000)	최경희(3,000,000)	황정아(200,000)		

●목적헌금●

옥타회원(1,000,000)

●개인 감사헌금●

곽정희(50,000)	구명신(150,000)	김갑희(340,000)	김갑희(40,000)	김경숙(10,000)	김덕재(30,000)
김동민(10,000)	김미선(30,000)	김성희(30,000)	김숙희(200,000)	김영관(30,000)	김영미(200,000)
김영선(10,000)	김영진, 손미나(100,000)	김용달(300,000)	김윤희(50,000)	김재균(50,000)	김태세(50,000)
김하영(100,000)	김행심(10,000)	김현숙(30,000)	김혜영(10,000)	김효숙(10,000)	꼭가장힘든사람(20,000)
나선미(100,000)	남경희(100,000)	노숙자위환후원드림(250,000)	노원균(10,000)	노현숙(20,000)	박기백(50,000)
박동준(10,000)	박민희(50,000)	박선순(20,000)	박세준(20,000)	박수현(100,000)	박수현(20,000)
박익규(60,000)	박정애(30,000)	배경원(20,000)	변경자(20,000)	석동신(20,000)	성준호, 정미혜(100,000)
손왕목(100,000)	손진섭, 정순명(100,000)	송계순(30,000)	송규화(20,000)	송규화(20,000)	신외숙(50,000)
심요엘(10,000)	엄은숙(200,000)	염소망(20,000)	오동원(200,000)	오수현(20,000)	유미영(50,000)
유정옥(10,000)	윤갑수(10,000)	윤경선(52,000)	윤석중(10,000)	이강혁, 이강현(65,000)	이명우(10,000)
이성숙(30,000)	이성웅, 이한나(200,000)	이성혜(5,000)	이연옥(10,000)	이원욱(100,000)	이정대(10,000)
이정호(50,000)	이재성(50,000)	이준근(4,000,470)	이춘(100,000)	이춘귀(100,000)	임승철(50,000)
임채원(10,000)	장광욱, 장자인(50,000)	장순복(30,000)	정규택(30,000)	정순조(50,000)	정주연(50,000)
조양춘(50,000)	조영미(30,000)	조정희(10,000)	주순옥(50,000)	진예린(5,000)	최자임(100,000)
최진복(20,000)	최희호(30,000)	캐나다 프레디(100,000)	한경숙(10,000)	허명중(30,000)	홍현정(30,000)
황주현(39,000)	0896(200,000)	미국 뉴저지 Park Sun Hyeon(\$100)			

●기관 감사헌금●

(기감)남산교회 총여선교회(100,000)	(기감)새안산제일교회(100,000)	(기감)선한목자교회(100,000)	(기감)수색감리교회(100,000)
(기감)아현감리교회(200,000)	(기감)안양감리교회(200,000)	(기성)강변교회(200,000)	(기성)상도성결교회(50,000)
(기성)식도성결교회(50,000)	(기성)아현성결교회(100,000)	(기성)장충단교회(100,000)	(예성)예수교대한성결교회(50,000)
(예장)대한예수교장로회(50,000)	(예장)문화교회(100,000)	(예장)서빙고온누리교회(300,000)	(예장)서빙고온누리교회(100,000)
(예장)양재온누리교회(500,000)	(예장)영동중앙교회(50,000)	(예장)영락교회(3,000,000)	(예장)영락교회(500,000)
(예장)우리하나교회(30,000)	(예장)우리하나교회(30,000)	(예장)조이어스교회(625,500)	(사)온누리약국사회복지회(300,000)
독서모임 나는(100,000)	베이직교회 통독반(5,000,000)	성호교회(50,000)	수정교회(50,000)
순복음사랑교회(472,450)	안동동부교회(100,000)	양의문교회(300,000)	양의문교회(300,000)
양의문교회1남선교회(130,000)	예봉교회(50,000)	오병이어찬양단(20,000)	(주)서일이앤엠(20,000,000)
(주)컨피테크(100,000)	(주)한국경제신문(600,000)		

●미얀마고아 선교헌금●

곽상미(40,000)	김부녀(40,000)	김영신(40,000)	김영신(40,000)	김재민(40,000)	김현석(40,000)
박경근(40,000)	박지영(40,000)	윤혜경(40,000)	이만식(40,000)	이성자(40,000)	이성자(40,000)
이현미(40,000)	이혜란(40,000)	조갑동(40,000)	주영훈(40,000)	최신애(40,000)	최신애(40,000)

●중국고아 선교헌금●

김영신(40,000)	김영신(40,000)	김정아(40,000)	박선주(40,000)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조춘식(40,000)					

●멕시코고아 선교헌금●

김동만(40,000)	김영신(40,000)	김영신(40,000)	배서윤(40,000)	윤혜경(40,000)	이성자(40,000)
이혜란(40,000)					

●북한고아 선교헌금●

권경희(10,000)	김광훈, 김미영(50,000)	김명호(40,000)	김영신(40,000)	김재성(100,000)	박승호(50,000)
사랑의교회여제자반(50,000)	서제윤(40,000)	석영란(40,000)	유재미(40,000)	윤혜경(40,000)	이만식(40,000)
이은경(30,000)	이혜란(40,000)	주혜선(40,000)			

●북한 선교헌금●

정유진(30,000)	한경주(10,000)	한승주(10,000)	한시운(10,000)
-------------	-------------	-------------	-------------

●아이티고아 선교헌금●

(사)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pacific JNU corp.(40,000)					
갓피플웨딩(40,000)	갓피플웨딩(40,000)	강병춘(40,000)	강인순(40,000)	고순미(40,000)	김경희(40,000)
김대준(40,000)	김상진(40,000)	김영신(40,000)	김영신(40,000)	김재민(40,000)	노윤정(40,000)
박선인(40,000)	박선주(40,000)	박은혜(40,000)	박은혜(40,000)	박준영(40,000)	백정선(40,000)
서은혜(40,000)	손향(40,000)	송현주(40,000)	송현주(40,000)	안영종(40,000)	윤혜경(40,000)
이수미(40,000)	이재혁(40,000)	이찬의(40,000)	이혜란(40,000)	임영신(40,000)	장요셉(40,000)
정계순(40,000)	장규태(40,000)	조봉순(50,000)	주혜선(40,000)	한국외국어대학교서양종교사상학의이해(40,000)	

●아이티 선교헌금●

강은수(200,000)	곽혜란(100,000)	김미희(1,000,000)	김수천, 이준자(100,000)	김재정(30,000)	무명(300,000)
무명(5,000,000)	무명(1,000,000)	박종래, 최임선(20,000)	박혜진(5,000)	박효정(200,000)	새산성교회(10,000)
송은혜(30,000)	이치훈, 이승훈(10,000)	조경숙(100,000)	조경숙(100,000)	한중석(150,000)	
해외후원헌금드림(250,000)	김영신(35,000)	박영미(35,000)			

●해외 아이티 선교헌금●

C(\$500)	은혜와사랑교회(\$500)	최재림(\$250)	최유운(\$250)
----------	----------------	------------	------------

●쌀 헌금●

김은희(50,000)



(취창세에스엔티(50,000)	갯피플웨딩(50,000)	강도숙(10,000)	강명미(10,000)	강미정(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성애(5,000)	강순옥(10,000)	강연정(3,000)	강영철(40,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일화(20,000)
계명산업(50,000)	고건해(10,000)	고남균(10,000)	고명숙(30,000)	고명희(1,000)	고영희(10,000)	고정숙(10,000)
곽상미(10,000)	구종해(5,000)	권명순(10,000)	권정아(10,000)	권혁천(10,000)	권희림(10,000)	길벗여행사(100,000)
길상일(10,000)	김경진(10,000)	김광일(30,000)	김광찬(10,000)	김기열(3,000)	김동관(30,000)	김동균(50,000)
김동영(10,000)	김명숙(10,000)	김명순(10,000)	김명자(20,000)	김명호(20,000)	김명희(10,000)	김문숙(10,000)
김미숙(10,000)	김미영(50,000)	김미화(10,000)	김베드로(10,000)	김보연(30,000)	김보연(5,000)	김부녀(30,000)
김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영(2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성란(20,000)	김성만(20,000)
김성호(10,000)	김소라(10,000)	김소연(40,000)	김소자(5,000)	김수경(10,000)	김수영(20,000)	김숙미(10,000)
김순하(10,000)	김수아(10,000)	김수훈(30,000)	김영상(5,000)	김영성(5,000)	김영숙(10,000)	김영숙(5,000)
김영숙(5,000)	김영순(10,000)	김영신(35,000)	김영인(50,000)	김영인(1,000)	김영진(10,000)	김영진(40,000)
김옥경(20,000)	김옥녀(50,000)	김원숙(5,000)	김은경(10,000)	김은주(10,000)	김의환(5,000)	김인숙(10,000)
김일형(20,000)	김재동(30,000)	김재정(40,000)	김재한(10,000)	김정기(20,000)	김정미(50,000)	김정순(10,000)
김종미(10,000)	김종복(10,000)	김종선(2,000)	김주애(20,000)	김지현(30,000)	김지현(10,000)	김진아(5,000)
김태규(20,000)	김태근(10,000)	김태조(10,000)	김태훈(5,000)	김한나(5,000)	김해남(5,000)	김향숙(10,000)
김현미(20,000)	김현미(10,000)	김현자(30,000)	김현정(5,000)	김혜란(20,000)	김홍주(30,000)	김홍희(5,000)
김희자(10,000)	김희자(20,000)	김희정(10,000)	김희정(50,000)	나영미(20,000)	나주열(10,000)	남혜경(20,000)
라미영(50,000)	류명순(5,000)	류희정(10,000)	명은자(10,000)	명주현(10,000)	무명(30,000)	문경자(5,000)
문혜영(10,000)	박경근(30,000)	박경옥(10,000)	박경희(10,000)	박관택(30,000)	박명희(5,000)	박미경(10,000)
박미희(40,000)	박민선(10,000)	박민숙(10,000)	박민정(20,000)	박배근(10,000)	박봉선(10,000)	박상신(10,000)
박서애(10,000)	박서운(20,000)	박성경(5,000)	박성영(30,000)	박소정(30,000)	박숙희(5,000)	박순영(10,000)
박영애(20,000)	박영화(20,000)	박용원(20,000)	박은혜(10,000)	박은혜(20,000)	박인권(20,000)	박자연(50,000)
박종호(10,000)	박찬국(30,000)	박찬권(1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효숙(20,000)	박효진(5,000)
백창미(5,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변현영(10,000)	사순희(10,000)	사재신(20,000)	사상숙(20,000)
서울제일침례교회(100,000)	서정숙(30,000)	서지연(10,000)	서혜원(40,000)	석영란(10,000)	석진혁(30,000)	성기빈(40,000)
성준호(10,000)	성찬영(50,000)	손경순(30,000)	손석원(20,000)	손성미(2,000)	손요섭(10,000)	손진아(10,000)
송남(10,000)	송상신(10,000)	송재란(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10,000)	송지영(10,000)	신건월(30,000)
신영주(10,000)	신현숙(10,000)	신호래(10,000)	심사랑(10,000)	심현진(5,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10,000)	안영종(10,000)	안유진(10,000)	안주백(10,000)	안호철(10,000)	안훈숙(10,000)	안희영(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의문교회1남전도회(30,000)	양인권(20,000)	양재희(10,000)	양현아(20,000)	염영태(5,000)
(김포)예수사랑교회(30,000)	오수아(30,000)	오재원(10,000)	오점곤(100,000)	오진숙(5,000)	오혜숙(10,000)	용기숙(50,000)
우건화(30,000)	우선아(30,000)	우창훈(40,000)	우창훈(4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상희(5,000)
유미선(3,000)	유복희(10,000)	유부자(10,000)	유선옥(10,000)	유성욱(10,000)	유이레(10,000)	유정희(10,000)
유지영(10,000)	유지영(5,000)	유지영(30,000)	유현숙(10,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금복(10,000)
윤상길(5,000)	윤상철(10,000)	윤상훈(5,000)	윤예강(10,000)	윤예은(10,000)	윤원(10,000)	윤용석(10,000)
윤정희(5,000)	윤진식(100,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효상(30,000)	윤희영(1,000)	은미선(50,000)
이강선(10,000)	이강섭(2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민(20,000)	이경수(10,000)	이경진(10,000)
이관호(20,000)	이광옥(2,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동욱(10,000)	이만식(20,000)	이명숙(10,000)

이병기(10,000)	이보미(10,000)	이선미(20,000)	이선영(30,000)	이선호(10,000)	이성웅(10,000)	이성자(100,000)	이수미(10,000)
이수민(10,000)	이수정(50,000)	이순아(10,000)	이승연(3,000)	이승재(10,000)	이애희(10,000)	이영미(30,000)	이영숙(200,000)
이영옥(10,000)	이윤한(10,000)	이원경(10,000)	이원우(3,000)	이윤미(10,000)	이윤미(10,000)	이윤미(30,000)	이윤희(10,000)
이은경(10,000)	이은숙(10,000)	이은정(10,000)	이의희(10,000)	이장일(10,000)	이재순(5,000)	이재형(10,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정희(5,000)	이종성(10,000)	이종수(40,000)	이종현(10,000)	이종훈(50,000)	이주아(20,000)	이주열(10,000)
이주혜(50,000)	이준옥(50,000)	이지숙(10,000)	이지훈(50,000)	이찬의(50,000)	이창식(20,000)	이창호(50,000)	이향순(50,000)
이현주(10,000)	이현주(20,000)	이혜경(10,000)	이혜성(5,000)	이홍종(30,000)	이화영(5,000)	임경주(10,000)	임경희(20,000)
임경희(10,000)	임미향(1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섭(5,000)	임수연(10,000)	임숙(10,000)	임신희(10,000)
임영미(2,000)	임영희(30,000)	임진옥(30,000)	임현재(5,000)	임혜순(30,000)	임화경(30,000)	장명희(10,000)	장문심(100,000)
장민홍(1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용훈(100,000)	장윤정(10,000)	장인희(30,000)	장현주(10,000)
장현주(10,000)	전선형(5,000)	전영성(5,000)	전영수(50,000)	전영신(100,000)	전은경(10,000)	전재국(10,000)	전재국(10,000)
전진우(5,000)	정경아(5,000)	정경호(30,000)	정경환(30,000)	정광덕(50,000)	정금자(10,000)	정덕규(20,000)	정두레(10,000)
정두섭(1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성분(10,000)	정애리(20,000)	정영호(30,000)	정윤경(10,000)	정은희(10,000)
정재호(40,000)	정재희(30,000)	정종근(50,000)	정진숙(10,000)	정진중(100,000)	정해자(10,000)	정혜신(2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근정(10,000)	조미숙(10,000)	조민희(30,000)	조성림(10,000)	조성원(1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용배(10,000)	조운정(100,000)	조은영(10,000)	조춘호(5,000)	조혜원(1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주천양교회(50,000)	지선옥(12,000)	지영자(20,000)	지윤희(30,000)	진순애(1,000)	진희순(20,000)	참소망연합의원(50,000)	
채정임(10,000)	채지영(30,000)	채희자(50,000)	최경선(10,000)	최규덕(20,000)	최병수(30,000)	최봉기(10,000)	최성근(50,000)
최성미(20,000)	최수경(40,000)	최영숙(30,000)	최영실(5,000)	최옥순(10,000)	최완희(100,000)	최용관(30,000)	최원동(10,000)
최유리(10,000)	최임부(10,000)	최재선(20,000)	최재휘(100,000)	최진명(10,000)	최춘삼(10,000)	최현미(1,000)	최현숙(20,000)
하문수(30,000)	하천기(10,000)	하희태(30,000)	한귀원(50,000)	한기숙(10,000)	한기윤(20,000)	한동기(50,000)	한미운(30,000)
한선중(5,000)	한지영(5,000)	한진현(10,000)	한혜민(20,000)	함수아(10,000)	허근(30,000)	허명수(10,000)	허미(10,000)
허서운(50,000)	허성진(10,000)	허인애(30,000)	홍수경(20,000)	홍영희(5,000)	홍유미(5,000)	홍정희(20,000)	홍정희(10,000)
홍진애(10,000)	황금해(10,000)	황보순(50,000)	황순분(50,000)	황옥남(1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중문(10,000)
황희천(20,000)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소중한사람들입니다.

올 한해도 소중한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후원자님들의 손길 덕분에 따뜻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전화 또는 메일로 알려주시면 우편 또는 팩스로 발급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사정에 따라 당일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날짜보다 3~4일 여유가 있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2019년도에도 많은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02-365-9106 / street9106@naver.com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01 **소중한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중림파출소 뒤, 경기여상 후문 앞).

소중한 사람들에 헌금을 보내시려면

- 0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 0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
- 0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5-0059-6115-03 소중한사람들교회 우리은행 1005-902-662703 소중한사람들교회
- 0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NIM DONG BR SWIFT CODE : HVBKRRSEXXX 소중한사람들교회
 * 체크로 보내실 경우 JUNG OK YOO 31 VIRGIL RD NORWOOD NJ 07648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 05 청평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천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소중한사람들 후원신청서 (F. 02-365-9104 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 명			이 메 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 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목적지정 안함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사업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교회 <input type="checkbox"/> 청평힐링센터(1구좌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해외고아 1:1 결연(4만원) <input type="checkbox"/> 미얀마 <input type="checkbox"/> 아이티 <input type="checkbox"/> 멕시코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북한			
	후원금액	원	후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후원(CMS) <input type="checkbox"/> 직접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CMS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input type="checkbox"/> 6일 <input type="checkbox"/> 16일 <input type="checkbox"/> 26일	통장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통장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 한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274-3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
- 미 국** [Precious People] 41 E. Prospect Ave. Mt. Vernon, NY 10550 U.S.A.
- 아이티** DELMA 75, PORT-AU-PRINCE, HAITI TEL 509-3655-7153
- 멕시코** Lote 4 Man Zana 7 s/n nacionalistade Sanchez Tabada la Meza Ensenada, B.C cp22790 TEL 521-646-947-9250
- 미얀마** No724/D. No(41) B.E.P.S Lane, Lower Mingalardom Road, Sintngu @TR, Insein Tounship yangon. Myanmar. TEL 951-645858, 959-73086721

중
북
한